

미국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배경*

안병진**

현재 부시 행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보수주의 정치세력의 이념은 하나의 일관된 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적 뿌리들이 얽혀 있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사상적 뿌리 중 신보수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스트라우스의 이념적 특징과 정치적 함의를 엘리트주의, 절대적 도덕관, 공포와 힘, 시민적 덕성과 종교의 중요성 등 4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때 이 논문은 스트라우스의 이념을 단순히 소개하기보다는 스트라우스주의가 어떻게 현 부시 행정부의 정치에 수렴되는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1. 서 문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레오 스트라우스라는 정치사상가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소위 네오콘 진영의 이념적 배경을 제시한 인물로 전 세계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각은 미국 역사상 대단히 이채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토크빌이나 하이에크 등 많은 사상가들이 지속적으로 미국 정치에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이란 표현 속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의 행정부에 하나의 주의 하에 수많은 인맥들이 포진 한 것은 전

* 이 글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후원으로 12월 28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미국 신보수주의의 지적 전통과 그 정치세력에 관한 연구 발표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임을 밝힌다.

**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nsfsr@hotmail.com

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의 이러한 부각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경향을 놓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트라우스주의의 정치에의 영향력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9·11 이후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역사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의 단적인 예를 보려면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스트라우스주의와 거의 친화성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민주당 정권과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클린턴 전민주당 정권의 국내 노선의 핵심 과제였던 가치 아젠다(values agenda)는 비록 리버럴적 성향이지만 저명한 스트라우스주의자인 윌리엄 갤스턴(William Galston)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¹⁾ 이 가치 아젠다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시민적 덕성의 문제는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이 수십 년간 미국 정치의 해결책으로 가장 강조해온 이념중 하나인데 이것이 흥미롭게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후 비로소 전면적으로 꽃을 피운 셈이다.

9·11 테러 이후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의 부상이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국내 노선에 있어서의 일정한 성공에 이어 드디어 국제외교노선에 있어서도 이들이 주류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주류 외교노선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스트라우스주의의 흔적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국익, 신중함 등으로 집약되는 현실주의나 도덕적 규범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는 현상유지와 국제적 도덕 규범을 동시에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스트라우스주의에 공통으로 심한 경멸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공식 외교노선은 더 이상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라는 틀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 채택한 선제공격 독트린은 이들 스트라우스주의자들 중 일부가 냉전 시절 그토록 주창했으나 오히려 스스로를 행정부 내에서 고립시켰던 관점인데 이제 이것이 공식적 독트린으로 채택된 것이다. 얼마 전의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국내적으로는 보수주의적 가치와 국제적으로는 선제공격 독트린이 비록 미약한 과반수이지만 선거를 통해 우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절망한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이라는 보수적 컬럼니스트는 미국이 “신정분리 국가의 면모를 지켜가고 있는가”라고 강하

1) 이에 대해서는 안병진(2003b)을 참조할 것.

게 회의감을 표시하기까지 했다(Friedman, 2004).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경향은 스트라우스주의의 정치적 영향이 보다 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실 지금까지 스트라우스주의의 정치적 측면은 부각된 만큼 그에 부합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오지는 못했다. 이에 는 스트라우스주의를 대표하는 스트라우스의 방대한 저작들이 실제로는 정치적 발언을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에도 연관된다. 또한 사상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질 만큼 기초적인 문헌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하지만 최근 스트라우스 진영에서 훈련받은 앤 노튼(Anne Norton) 교수가 스트라우스 진영의 정치적 경향을 회고록적 스타일로 발간하는 등 약간씩 보다 심화된 연구를 향한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Norton, 2004). 이 글은 비록 심화된 차원의 연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기반을 둔 스트라우스주의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종합적 정리라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과거 스트라우스주의의 이념적 특질의 정치적 함의를 시론적 차원에서 정리한 바 있다(안병진, 2004). 이 글은 이러한 연구에 기반을 두면서도 가능한 이념적 특질들이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적 정치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2. 스트라우스주의의 기본 이념 및 계보

신보수주의가 권력의 핵으로 부상하자 마치 밀교처럼 평생 드러나지 않는 엘리트의 은밀한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의 보수주의학파를 꽃피운 사상가인 레오 스트라우스가 사후에 신보수주의의 대부로서 현재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유대인 출신으로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여 시카고 대학에 머물면서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을 비롯한 고전 철학을 재해석하여 많은 도발적인 저서들을 남겼고 미국 전역의 대학에 소위 스트라우스 학파를 만들어내었다. 그의 대표적 저서들은 《홉스의 정치 철학》(The Political Philosophy of Hobbes, 1932), 《독재론》(On Tyranny, 1948), 《자연권과 역사》(Natural Right and History, 1953), 《마키아벨리에 대한 사상》(Thoughts on Machiavelli, 1958), 《철학이란 무엇인가》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1959), 《스피노자의 종교비판》(Spinoza's Critique of Religion, 1965) 등이다.²⁾

학계의 대표적인 스트라우스주의자들로 널리 알려진 이들로는 우선 하버드 대학의 하비 맨스필드(Harvey Mansfield)와 조셉 크롭시(Joseph Cropsey)를 들 수 있다. 맨스필드는 “역사의 종언”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프란시스 후쿠야마와 네오콘의 핵심인사이며 위클리 스탠다드의 주간인 윌리엄 크리스톨을 가르쳤다. 크롭시는 국방부내 네오콘 핵심인 폴 월포위츠와 아브람 숄스키를 가르쳤다. 클레르몽 대학의 해리 자파(Harry Jaffa)는 특히 매우 당파적인 인물로 널리 알려졌으며 전투적으로 논쟁을 즐겨서 단지 좌파뿐 아니라 다른 보수주의 경향의 인사들과도 논쟁을 자주 벌인 바 있다. 스트라우스 학파에서 다소 독특하지만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은 국제정치학자인 알버트 웰스테터(Albert Wohlstetter)이다.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스트라우스의 정치학 동료로서 그와 긴밀히 교류하면서 상호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서로 서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사뭇 달랐지만 그와 스트라우스는 교류의 과정에서 공통으로 힘에 대한 숭배, 리버럴들이 득세하는 근대적 사회에 대한 우려 등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냉전 시절 그의 제한적 핵무기 사용의 유용성에 대한 주장은 그간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금기를 깨뜨리는 도발적 주장으로서 힘과 공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트라우스와 사고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보다 정치 사상에 대한 관심에 경도된 스트라우스 학파들은 현실 정치를 전공하고 실제 정부 정책에 자문을 제공하는 웰스테터와 교류하면서 보다 현실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월포위츠는 스트라우스와 웰스테터로부터 배우면서 정치 이념과 현실 이슈를 공통적으로 훈련받을 기회를 제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다(Norton, 2004: 3). 무엇보다도 스트라우스 이념을 대중적으로 전파하는데 큰 공헌을 세운 것은 시카고 대학의 알랜 블룸(Allan Bloom)이다. 그는 밀교적으로 엘리트 내에서의 지적 영향력을 중시한 스승과 달리 《미국 정신의 종언》(Closing of American Minds)이라는 베스트셀러를 통해 대중적으로 리버럴 엘리트

2) 이러한 주저 중에서 《자연권과 역사》는 2001년 인간사랑 출판사(홍원표 옮김)에 의해 번역이 되어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 레오 스트라우스 정치 사상에 대한 국내의 선구적 소개는 홍원표(1992)와 김영국(1995)을 참조할 것.

들에 대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스트라우스주의자들 이념의 핵심적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대의 리버럴리즘과 대비되는 고대적 리버럴리즘의 복원이다. 스트라우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³⁾

우리 시대의 보수주의는 현재의 리버럴리즘의 방향으로의 변화로 다소간 수정된 원래의 리버럴리즘과 동일하다(Strauss, 1968: ix).

스트라우스가 보기에 원래의 고대적 리버럴리즘은 인간의 이기심을 기초로 한 쾌락을 중시하는 현대의 리버럴리즘과는 달리 '진정으로 덕성을 가진'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현대의 리버럴리즘이란 마키아벨리에서 시작하여 홉스, 로크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이들은 인간의 생존이나 이기심을 자연권의 본질로 간주한다.⁴⁾ 이들 근대주의자들은 인간의 영원성(eternity)과 완전성이라는 고상한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지평을 생존이나 이익으로 격하시키고 이를 위한 가치중립적이고 개인주의적 합의로 격하시킨다고 스트라우스는 본다. 이러한 근대주의의 핵심 경향은 역사주의나 실증주의처럼 결국 영원한 진리를 포기하고 가치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 경사된다는 점에서 이후 필연적으로 허무주의로 귀결되고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다고 그는 지적한다.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과 나찌즘의 발호를 이러한 근대성의 필연적 귀결로 이해한 스트라우스는 미국으로 망명한 후에 '성숙상태의 미국'이 고대적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국가로 간주한다. 흥미롭게도 스트라우스를 매혹시킨 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

3) 이하의 내용은 안병진(2004: 129-130)에 기반을 둔다.

4) 루이 알튀세 등의 학자들은 마키아벨리는 공포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로크 등의 이성애 기초한 사회 계약론적 전통과 질적으로 다른 흐름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스트라우스는 독특하게도 이들 모두 근대적 현실주의자라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본다. 김동규에 따르면 원래 스트라우스는 홉스를 근대주의의 시조로 보았는데 《홉스의 정치철학》 미국판 서문(1952)을 포함한 후기 저작에서 마키아벨리를 홉스를 앞선 근대주의의 창시자로 해석한다(김동규, 1999: 64).

(mixed regime)에 가까운 고대적인 삼권분리 시스템이었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고대적인 공화주의 정치체제는 거친 민중의 열정을 통제하고 대신에 지혜와 덕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장치이다. 반면에 그는 미국 사회가 조금씩 근대화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동료 보수주의자인 월무어 켄달(Willmoore Kendall)에게 보낸 편지에서 케네디 행정부의 정치 스타일이 지혜보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Lenzner, 2003).

이후 스트라우스의 제자들은 미국 사회의 고대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논쟁하며 미국 사회에 대한 스트라우스적 관점을 널리 전파하였다. 예를 들어 해리 자파는 미국의 건국의 시조들이 고대적인 자연권 사상을 지혜롭게 적용하였다고 지적한 반면 마틴 다이몬드(Martin Diamond)나 월터 번즈(Walter Berns)는 미국은 고대적인 자연권 원칙보다는 로크와 같은 근대적인 계약제 전통에 입각하였고 이에 따라 종교 등의 중요한 가치가 사적인 영역으로 추방되었다고 반박하였다.⁵⁾ 이들은 비록 미국 헌법의 공화주의적 내용에 대해 서로 관점이 달랐지만 이러한 논쟁을 통해 미국 사회의 고대적 재편과 시민적 덕성과 종교의 필요성을 전면에 부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라우스주의의 고대성에 대한 관심이 곧 전통적인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상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스트라우스는 고대적 리버럴리즘이 전통적인 보수주의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본성상 과거의 것이나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지각에 의해 인도되므로 그것은 단순한 보수주의는 아니다(Strauss, 1968: x).

즉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은 한편으로 고대적 인간형을 복원하고자하는 점에서는 매우 과거 지향적이지만 이는 단순한 전통에 대한 보수주의적 기질이라기보다는 고전철학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기존 문명의 기초를 뿌리로부터 전복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급진적이다.

5) 이들의 논쟁에 대해서는 드소자(D'Souza, 1987) 및 드러리(Drury, 1997)를 참조할 것.

이러한 현대적 리버럴리즘이나 단순한 전통적 보수주의와의 차별은 우리로 하여금 스트라우스주의와 신보수주의와의 친화성을 고민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사실 신보수주의의 선구자들도 스트라우스처럼 자신을 전통적인 보수주의보다는 '개혁된 리버럴(reformed liberal)'로 자칭하곤 하였다. 예를 들어 어빙 크리스톨은 자신을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로 표현하기보다는 변화된 현실(공산주의의 위협과 국내에서 신좌파의 보헤미안적 급진성)에 의해 '강도당한(mugged)' 리버럴로 즐겨 표현하였다.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스트라우스주의의 핵심 문제의식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보수주의의 대부에 해당되는 어빙 크리스톨의 저작을 살펴보면 근대성에 대한 회의와 절실한 위기감, 고대적 귀족주의에 대한 동경, 현대 리버럴리즘에 대한 강한 적대감, 절대적 가치와 힘에 대한 동경, 덕성과 종교의 중요성 등이 확인된다.⁶⁾

스트라우스와 신보수주의자들의 친화성은 이러한 유사한 문제의식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념적 뿌리로서 스트라우스의 영향력을 증언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신보수주의 운동의 핵심 논객들인 어빙 크리스톨, 윌리엄 크리스톨, 폴 울포위츠(Paul Wolfowitz), 디네시 드소자(Dinesh D'Souza), 윌리엄 베넷(William Bennet) 등에 스트라우스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 한 스트라우스주의자는 스트라우스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6) 하지만 상호간에는 긴장도 존재한다. 스트라우스와 신보수주의자들의 전근대적 취향을 지나치게 동일시한 새디아 드러리 등의 학자의 견해와 달리 필자가 보기에 신보수주의자들은 점차 근대성과 화해하며 오히려 미국이 후기산업사회로 나아가는 경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스트라우스가 귀족적적 잔재가 남아있는 미국 민주주의의 전근대성이 가지는 긍정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소련을 근대성이 더 발전된 부정적 체제로 판단한 반면에(Drury, 1997, 15)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은 후기산업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후기산업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 의식에 주목한 것으로는 Devigne(1994)와 안병진(2004)을 참조할 것.

7) 이들 스트라우스주의자중 특히 어빙 크리스톨과 드소자는 그들의 에세이에서 자신을 비롯한 신보수주의자들에게 미친 스트라우스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크리스톨(Kristol, 1983: xii), 드소자(D'Souza, 1987: 36)를 참조할 것.

스트라우스는 우리들 견해 저편의 보다 더 커다란 지평선을 보여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 견해의 포로임을 깨닫게 해주었다(D'souza, 1987: 36).

현재 워싱턴 정가는 이러한 스트라우스주의의 영향 하에 많은 신보수주의 정치인들이 활약하고 있다. 물론 스트라우스주의적인 정치인들의 면면은 단지 신보수주의자들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94년 '미국과의 계약'으로 유명한 공화당 전 하원의장 뉴트 킹그리치는 국내 정책 등에 대한 입장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히 신보수주의자로만 분류하기 어려우나 스트라우스의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Berstein, 1995).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클린턴 전 행정부의 국내 정책 형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깬스틴은 스트라우스주의자이지만 리버럴로 분류된다. 하지만 현재 부시 행정부 주변의 대표적인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은 대부분 신보수주의적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국방부 장관인 폴 월포위츠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국방부에서 전략무기 통제국장으로서 활약한 아브람 슐츠와 랜드 연구소의 리차드 필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스트라우스주의자들과 함께 정부 내 인사 및 정부 바깥의 연구소 인사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정책들을 양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이념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새로운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이다. 여기에는 월포위츠 뿐 아니라 윌리엄 크리스톨, 로버트 케이건, 게리 슈미트 등 대표적인 신보수주의 인사들이 주도한 바 있다. 국내 정책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트라우스주의자는 레온 카스로서 그는 생명 윤리에 대한 대통령 자문위(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의장으로서 신보수주의적 국내 정책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의 이념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스트라우스주의가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 정치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스트라우스주의 4가지 이념적 특성⁸⁾과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 정치

1) 엘리트주의

스트라우스는 플라톤적인 전통에 기반을 두어 정치 체제에 대해 매우 엘리트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그는 인간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고전 철학자들을 칭찬하며 최선의 레짐(regime)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최선의 레짐은 최고의 인간들이 습관적으로 통치하는 것, 즉 귀족정이다. 선은 지혜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지혜에 좌우된다. 즉 최선의 레짐은 현자의 지배인 것 같다(Strauss, 1953: 140).

물론 “소수의 현자는 다수의 현명치 못한 사람들을 강제로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스트라우스는 인지하고 있기에 현실적 해결책으로 그는 “지혜와 동의의 요건을 조화”시키는 것에서 찾고 있다. 그가 삼권분립의 체제를 가지는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합리적 체제로 고려하는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사실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관점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우선시하는 보수주의적 정치 이론 전반에 나타나는 평범한 현상이다. 하지만 스트라우스는 단순히 엘리트주의적 성향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얼핏 보면 위선적으로까지 보이는 엘리트의 이중적 역할을 찬양한다. 다시 말해 그는 한편으로는 엘리트는 민중들에게 그 사회가 기초하는 도덕과 정의를 열정적으로 전파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트 스스로는 은밀하게 모든 진리란 사실상 그 사회의 지배적 엘리트의 생산물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⁹⁾ 따라서 그는 “지배권을 행사하기 적합한 인물은 이

8) 이 분류는 기본적으로 안병진(2004)의 범주 구분을 따르고 있다. 단지 이 글은 시민적 덕성과 종교를 같은 문제의식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범주로 합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4가지 범주에 기초하여 신보수주의 정치와의 관련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9)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저서인 《철학이란 무엇인가》(1959)와 《박해와 저술기법》(1952)에 잘

세상에 도덕이란 존재하지 않고 더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할 권리인 자연 권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자”라고 공언하고 있다(Lobe, 2004). 비록 신보수주의의 부상으로 스트라우스는 전 세계 온갖 신문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는 이러한 엘리트의 이중성에 대한 신념에 입각하여 평생을 은밀한 밀교적인 가르침에 복무하였다.

레오 스트라우스와 그의 제자 블룸 등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의 엘리트주의가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것은 예외적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서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선의 승리와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엘리트의 거짓말의 미덕을 찬양하였다는 점이다(Drury, 1997: 80). 과거 조작과 음모로 몰락한 닉슨 전 대통령의 고뇌에 윌리엄 크리스톨을 비롯한 신보수주의자들이 공감하였던 것이나 또 다른 신보수주의자인 아브람스가 레이건의 이란 콘트라 스캔들에 연루되어 불법과 거짓말로 기소된 것은 이와 관련이 된다. 또한 이후 윌리엄 크리스톨이 킹그리치 하원의장과 함께 진위가 의심되는 정보에 입각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로 집요하게 클린턴 탄핵을 주도했던 양태는 결코 우연만으로 보기는 어렵다.¹⁰⁾

크리스톨을 비롯한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엘리트주의의 전통에 입각하여 사회를 지배하는 신화 혹은 관념을 만들어 내고 이를 전파하는 지식인의 역할에 특별히 큰 의미를 둔다. 이들에게 있어 지식인은 필연적으로 타락할 운명을 가지는 근대성의 내재적 경향에 맞서 싸울 중요한 전사의 역할이 부여된다. 그들이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진보적 엘리트만이 거의 장악해 온 미디어 매체와 연구소의 경향을 1970년대 후반부터 완전히 역전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이러한 강렬한 신념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은 지식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 속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

드러나 있다. 또한 이러한 후자의 지적은 자명한 진리의 허구성을 비판한 니체의 포스트 모던한 철학을 매우 닮아 있다. 하지만 물론 니체의 경우 기존 절대적 진리관에 대한 해체주의적 함의를 담은 급진성을 가진 반면 스트라우스는 엘리트의 조작적 역할이란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매우 다른 접근법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니체와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Drury(1988: 170-181)와 Devigne(1994: 38-39) 참조.

10) 이에 대해서는 안병진(2003b: 30) 참조.

하였다. 예를 들어 윌리엄 크리스톨이 주간으로 있는 『위클리 스탠다드』지는 부시 행정부의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가장 애독하는 신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러한 거짓의 미덕을 찬양하고 대중적 신화를 창출하는 엘리트의 역할이라는 스트라우스주의의 관점은 대량 살상 무기를 둘러싼 공방으로 극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2003년 5월 그간 전쟁의 핵심 명분으로 작용해온 이라크에서의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되고 있지 않자 윌포워츠 부장관은 『베니티 페어』(*Vanity Fair*)지와 인터뷰에서 무심코 대량살상무기는 “단지 관료적 구실이다. 그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실토하고 있다(Mason, 2004). 이러한 스트라우스의 수제자의 언급은 위에서 스트라우스가 지식인의 조작적 역할의 미덕을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스스로 이를 미덕으로까지 인지하고 있기에 윌포워츠는 규범적으로 큰 거리낌 없이 이러한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윌포워츠 발언 이후 더 한층 스트라우스주의의 부정적 영향이 드러난 것은 대량 살상 무기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의도적인 정보 왜곡에 대한 스캔들이 불거지면서부터이다. 세이모어 헬쉬 『뉴요커』(*New Yorker*)지 기자는 5월 기사에서 체계적으로 정보 왜곡을 주도해온 국방부 대량 살상 무기 정보 수집 팀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팀의 국장이 바로 스트라우스주의자이며 신보수주의 성향을 보이는 아담 슐스키라는 것이다. 그는 한때 “레오 스트라우스와 정보 세계(Leo Strauss and World of Intelligence)”라는 정보 보고서에서 은폐와 기만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Lobe, 2004: 1).

지난 2004년 대선 기간 부시 진영은 CIA가 백악관 측이 대량 살상 무기 정보 왜곡을 주도했다는 정보를 흘리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Sherwell, 2004). 최근 새로이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은 선거 기간 백악관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주도한 CIA 주요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 숙정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이러한 기도가 완성된다면 부시 2기의 정보 신경망은 언제든지 정권 엘리트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제작해낼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과거 스트라우스와 함께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 뉴욕의 뉴스쿨 포 소셜 리서치 대학에서 같이 재직했던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를 “정치가 진실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Drury, 1997: 80). 아이러니하게도 스트라우스는 전체주의의 화신인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 망명한 미국에서 전체주의적 기질의 거짓의 미덕을 전파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그가 이러한 미덕을 공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미국에서 엘리트의 밀교적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인책도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최근 윌포 위츠의 발언과 대량 살상 무기 정보 왜곡에 대한 지금까지 미국 사회의 관용은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리한 터전을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2) 절대적 도덕관

유럽에서 히틀러의 독재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스트라우스는 혼란스럽고 허약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의 집권에 길을 터주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리버럴한 민주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뺏속 깊이 새기게 된다. 이는 스트라우스로서는 민주주의가 독재로 타락하는 경우에 대한 플라톤의 가르침의 통찰력을 다시금 새기게 하는 계기였다. 이후 끔찍한 나치의 전체주의를 피해 헤겔이 ‘미래의 나라’라고 찬양한 미국에 건너온 스트라우스에게 미국은 또 하나의 바이마르 공화국에 지나지 않았고 이는 파시즘 등장의 전조로서 망명자에게는 커다란 악몽으로 다가왔다. 그는 근대성을 상징하는 미국의 리버럴 민주주의는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절대적 권위를 가진 진리가 부재한 공백 속에서 모든 견해와 종교, 문화들이 상대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독버섯처럼 자랐다고 지적한다(Strauss, 1965: 1). 이러한 스트라우스의 관점은 이후 그의 수제자인 알랜 블룸의 핵심 주제 속에서도 관통된다. 그는 『미국 정신의 종말』이란 책에서 60년대 신좌파의 문화적 상대주의가 서방문명을 망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적 도덕관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마치 부시의 악의 축 발언처럼 회해할 수 없는 절대적 선과 악의 대결로 보기에 현실주의자처럼 힘의 균형에 만족하기보다는 적의 박멸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스트라우스가 그와 긴밀히 교류하고 또 그의 미국 유학길을 도운 칼 슈미트(Karl Schmitt)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음에서 기인한다. 슈미트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¹¹⁾ 슈미트나 스트라우스 공히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리버털리즘이 이러한 정치의 독특성을 거세시키고 정치를 합의의 기술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선악관은 신보수주의의 대부격인 어빙 크리스톨과 마이클 노박에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선악관과도 어떤 측면에서는 연결된다. 비록 그 자신이 현실주의적 사상가이지만 니버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의 대결을 강조하며 선한 속성의 유약하고 상대의 좋은 측면만을 보려하는 순진함을 희생으로 하여 번성하는 악한 속성의 강력함을 지적하였다(안병진, 2003b: 30).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힘에 입각한 악의 세력과의 전면적 대결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이후 신보수주의자들의 관점을 보면 이러한 니버나 스트라우스의 영향이 흔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빙 크리스톨은 비록 니버의 선악관에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니버의 현실주의적 정치 인식에도 영향을 받아 절대적 도덕관에 입각한 지나친 개입주의는 회의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클린턴 행정부 기간동안 보스니아 침공에 대해 침묵과 방관의 태도를 취하는 등 보다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Ehrman, 1995: 184).

오히려 스트라우스의 관점은 울포위츠나 펄, 리비 등 부시 행정부 내의 신보수주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승된다. 스트라우스는 한 저작에서 “서구민주주의를 위해서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려면 전 지구를 민주적으로 변화시켜야한다”고 야심 차게 주장하기도 하였다(Strauss, 1964: 4). 이러한 관점은 이들이 추구하는 중동민주화 및 선제공격 독트린의 정신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선제공격 독트린은 다음과 같이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위협이 우리 본토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를 감지하고 파괴함을 통해 미국과 미국 국민과 국내외에서의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다. ...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방어가 적절한 공격임을 인지하는 것과 동시에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억제하기 위해 국토안보를 강화할 것이다(Whitehouse, 2002: 6).

11) 이에 대해서는 Heinrich(1995)를 참조할 것.

지금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 선제공격 독트린의 원형은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에서 이미 제시하였던 비전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선언하고 이에 입각하여 중동의 민주화를 위한 영구적 노력을 야심차게 선포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선제공격 독트린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미국은 전 지구적으로 전례 없으며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유의 원칙과 자유로운 사회의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지탱되면서 이러한 미국의 위치는 상당한 책임감과 의무와 기회를 동반하고 있다. 이 나라의 위대한 힘은 자유를 선호하는 힘의 균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이것은 또한 미국을 위한 기회이다. 우리는 이 영향력의 계기를 평화와 번영과 자유의 세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Whitehouse, 2002: 1).

‘평화와 번영과 자유의 세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체제들에 대한 ‘체제교체(regime change)’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여기서 ‘체제’란 단순히 행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가의 성격을 말한다.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서 특히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민주정’, ‘귀족정’ 등 상이한 유형들을 구분할 때 언급한 것으로 이는 스트라우스의 핵심 개념이기도하다. 그는 ‘체제의 교체(change)는 주어진 도시를 또 다른 도시로 전환(transform)시킨다’고 적고 있다(Xenos, 2004). 여기서 전환된 다른 도시는 이전 도시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 된다. 여기서 질적으로 상이한 체제 유형들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평가를 동반한다. 여기서 ‘체제 교체’의 담론은 자연스럽게 절대적 가치의 이분법적 대립인 ‘선과 악’의 담론과 친화성을 가진다. 그런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후 빈번하게 등장하는 악에 대한 담론은 체제교체 담론과 어우러져 민주적 가치의 지구적 수출이라는 스트라우스적 담론의 내용의 축을 형성한다. 하지만 민주적 가치에 대한 선호도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우스주의와 부시 행정부의 담론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며 박멸하려고 하는 극단적 이슬람 분파의 것을 닮아 있다. 예를 들어 앤 노튼 교수

에 따르면 빈 라덴이 숭상하는 이슬람 정치사상가인 사이드(Sayyid)는 근대성을 두려워하고 리버럴한 제도와 가치를 혐오하며 과거의 코란을 선한 정부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며 이슬람 문명을 방어하려고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스트라우스와 부시 행정부는 근대성을 두려워하고 리버럴한 제도와 가치를 혐오하며 고대의 자연법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며 서구 문명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Norton, 2004: 110).

물론 이 글에서 필자는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 등 담론 구조 자체에 스트라우스적인 신보수주의의 영향력이 전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행정부의 노선 결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시 대통령 스스로의 세계관은 신보수주의적이라기 보다는 텍사스 지역에서 형성된 잭슨주의적인 국수주의, 애국주의, 기독교주의, 포퓰리즘 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¹²⁾ 또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나 딕 체니 부통령등은 원래 전통적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신보수주의의 활동을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수아 마살이 증언하고 있듯이 특히 9·11 테러 이후 신보수주의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¹³⁾

가치에 대한 투쟁은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국제외교의 영역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국가안보와 국내 정치에서 절대적 가치의 중요성과 허무주의로 귀결되는 리버럴의 가치 다원주의 위협을 공통적으로 지적한 스트라우스처럼 이는 부시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스트라우스 진영에서 훈련되어온 앤노튼 교수는 이러한 가치에 대한 전투적 집착의 예를 생명 윤리에 대한 대통령 자문위에서 발견하고 있다. 먼저 이 자문위원회는 의장이며 신보수주의 성향인 레온 카스를 비롯하여 대부분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이다. 카스는 한 글에서 리버럴리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우리의 문화적 상대주의와 편이적인 상대주의는 우리가 채택하고 우리가 반대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일치를 이루기 어렵게 하

12) 이에 대해서는 마이클 린드(2003)를 참조할 것.

13) 그에 따르면 딕 체니 부통령 등은 과거 이라크에 대한 금수조치의 완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9·11 테러 이후 가장 강경한 매파가 되었다. 이에 그의 비서실장이자 네오콘의 핵심인 리비 등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Marshall(2003)을 참조할 것.

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Kass, 2004). 이들은 자문위를 스트라우스주의자로 채우고 리버럴들과의 첨예한 투쟁의 이슈인 줄기 세포 이슈에 대해 우호적인 인사를 해고하기 위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인사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이들이 과학을 자신들의 보수적 가치 아젠다에 종속시키는 것에 항의하여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은 2003년 4월 “부시 행정부는 환경과 건강과 생의학 리서치 및 국내외 핵무기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 목표에 맞추기 위해 체계적으로 과학적 사실들을 왜곡하였다”고 고발하고 있다(Kass, 2004: 90-91).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의 가치에 대한 독점적 집착을 잘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 미국 평화 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이사로 임명된 다니엘 파이프 교수의 경우이다. 노튼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스트라우스주의자이자 신보수주의자인 파이프 교수는 대학에서 캠퍼스 와치(Campus Watch)라고 하는 조직을 이끌었는데 이 조직은 스트라우스적 서적들을 교재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교수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항의하고 공개하여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Kass, 2004: 93). 이러한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의 가치에 대한 투쟁은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큰 영향을 발휘하는 기독교 근본주의 진영의 동성애 반대 투쟁 등과 결합되어 부시 행정부의 국내 정책 노선을 매우 보수주의적으로 귀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인다.

위에서 보이듯이 가치 전쟁에서의 매우 당파적이고 전투적인 모습은 공화당 전 반을 전투적으로 이끄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옥처럼 전투적인 (combative as hell)’ 것으로 널리 알려진 해리 자파의 다음의 언급은 이들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

서구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미국으로부터 와야 한다. 미국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공화당으로부터 와야만 한다. 공화당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내의 보수주의 진영으로부터 와야만 한다(Kass, 2004: 8).

사실 이들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 소위 ‘아칸소 프로젝트’라고 불린 반 클린턴 캠페인 주도에서 이미 진가를 발휘한 바 있다. 흔히 스트라우스 재단이라 불리고 리처드 멜론 스카이프라고 하는 세계 13위 억대 부자가 후원하는 스카이프

재단의 조직적 지원과 윌리엄 크리스톨 등 신보수주의자들의 반문명과의 투쟁 선언은 시드니 블루멘탈의 회고록에 잘 나타나 있다.¹⁴⁾ 이러한 전투적인 정치 스타일의 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니버적 영향으로 인해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를 경계한 어빙 크리스톨은 그의 자전적 에세이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당시 리버럴에 비해 전투적이고 무자비하지 못한 원인을 좌파들의 강렬한 이데올로기적 확산(맑스주의 승리의 과학적 필연성)에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절대적 확산은 현실에서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Kristol, 1983: 253). 하지만 2000년대 현실은 어빙의 예견과는 정반대로 신보수주의자들이 과거 신좌파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 리버럴들은 과거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의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5월 26일자 뉴욕타임즈에서 민주당 고참 전략가인 피터 하트(Peter Hart)는 “우리는 활용해먹을 이슈를 고를 뿐 우리 당이 무엇에 관한 당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90년대 이후 민주당은 과거 신좌파나 현재의 신보수주의자들같은 강렬한 사상적 원칙과 이에 근거한 전투성보다는 여론 마케팅에 경도된 활동을 보여 왔다. 이들은 또한 2003년 7월 6일자 뉴욕타임즈 컬럼에서 제임스 트라우브(James Traub)가 지적하듯이 리버럴리즘의 핵심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하게 강조하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의 투쟁 방식과는 달리 매우 온건한 모습을 보여 왔다(Traub, 2003). 2000년 대선에서 고어가 플로리다 투개표 사건 당시 대중적 투쟁을 오히려 방해하고 이후 쉽게 양보했던 에피소드가 이를 잘 시사해준다. 이후 2004년 대선에서 상대의 공격적인 정치광고에 수세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케리 후보의 스타일은 근원적으로는 이러한 사상적 뿌리 및 전투적 스타일의 부재라는 현 민주당의 전반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3) 공포와 힘의 중요성

비록 홉스의 근대적 계약론을 문명의 위기를 가져다준 부정적인 유산으로 강렬히 비판한 스트라우스이지만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대한 인식

14) 이에 대해서는 Blumenthal(2003)을 참조할 것.

과 이에 기반을 둔 힘에 대한 강조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통치자의 힘과 공포의 정치를 강조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그는 또한 비록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군주의 책략을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는 마키아벨리 사상을 사악하다며 적대감을 표시한 바 있지만 이탈리아 절대군주 시기의 혼란기에서 군주의 냉혹한 통치술을 강조했던 마키아벨리처럼 외부의 위협이 없으면 이를 만들어내서라도 정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담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Drury, 1997: 23). 이러한 마키아벨리적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비서구 독재 국가들에 대해서는 서방의 압도적 군사력을 두려워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trauss, 1964: 5). 비록 위에서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스트라우스가 그의 저작에서 자세하게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그와 지속적으로 사상적 교류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군사전략가인 윌스테터(Albert Wohlstetter)는 이러한 힘의 관점에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한 인위적 핵균형보다는 제한 핵전쟁을 옹호해왔다. 또한 신보수주의의 선구자격인 제임스 번햄(James Burnham)이 베트남 전쟁에서 리버럴들이 해온 단계적 공습같은 유약한 방식이 아니라 초기에 강력하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전술을 전환하도록 주장한 것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번햄의 이러한 베트남 전쟁의 교훈에 대한 관점은 후에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채택되어 압도적 군사력을 이용한 초기 승전 전략으로 정립되었다(Dorrien, 1993: 61). 이의 연장선상에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후 저명한 신보수주의자인 노만 포도레츠(Norman Podhoretz)는 미국이 공격받고 있는 이유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9·11 테러는 미국의 힘에 대한 경멸의 산물이며 미국이 오랫동안 테러리스트에 대해 힘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호전적인 이슬람에게 미국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강조하였다.¹⁵⁾ 포도레츠와 같은 힘에 대한 확신을 공유하는 울포워츠 등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한 최근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채택한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의 전쟁 전략은 스트라우스와 윌스테터의 사상을 가장 충실히 반영했던 전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들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은 노골적 힘과 공포 등의 강압적 수단을 숭상한 반면

15) 포도레츠(Podhoretz, 2002/이장훈 역, 2003: 156-157)에서 재인용.

협력과 세계정부와 같은 이상에 대해 경계한다. 사실 스트라우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슈미트는 세계정부 등의 칸트주의적 이념에 대해 노골적으로 경멸을 표시한 바 있다(Norton, 2004: 178). 이러한 관점은 현재 부시 행정부 내 신보수주의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 내 전통적 현실주의자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유엔 기구 활용을 놓고 줄 곳 치열한 대립을 전개해왔다. 이들의 이러한 일방주의적 관점은 부시 대통령 스스로가 잭슨주의적 일방주의 세계관을 가지기에 일시적인 전술적 후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쉽게 행정부 내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스트라우스로부터 유래하는 이러한 비서구 국가들에 대한 강압적 견해에는 평소 힘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믿음 말고도 서구적 인종주의의 편견이 강하게 섞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스트라우스가 과거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비서구권 문화에 대한 내재적 이해법을 강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실증주의가 “근대 서구사회에서 기원한 개념들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Strauss, 1959: 25). 그에 이어 그는 “타문화를 타문화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노튼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매우 유럽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안이나 아프리카 등 비서구권 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Norton, 2004: 34).¹⁶⁾ 부시 행정부하에서 벌어진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의 고문은 한편으로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연유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서구인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적대감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통령의 법률 자문인 알베르토 곤잘레스가 고문을 묵인할 때 참조한 소위 ‘고문메모(torture memo)’로 불리는 메모는 한 신보수주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메모는 고문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미국이 상대하는 적성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재량하에 다양한 고문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Gilson, 2004).

16) 노튼 교수는 스트라우스 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고대적이고 엘리트적이며 유럽적 지향성을 가지는 한나 아렌트도 아시안과 아프리카인 등 비서구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 예로서 그는 아렌트가 흑인 계열의 투쟁을 단지 ‘이기적(self-interested)’인 것으로 격하시키는 것을 들고 있다(Norton, 2004: 52).

4) 시민적 덕성과 종교의 중요성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인간의 사회성을 지적하였듯이 스트라우스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그렇게 형성되었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 않을 경우에 삶을 훌륭하게 영위할 수 없다. 인간은 이성과 언어 능력에 따라 다른 동물과 구분된다. 대화는 의사소통이고, 인간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어느 다른 사회적 동물보다 훨씬 사회적이다. 즉 인간성 자체는 사회성이다. 인간의 행위가 '사회적' 인가 아니면 '반사회적' 인가에 관계없이 인간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연계시키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과 연계된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성은 그가 결사로부터 기대하는 쾌락에 대한 이해타산으로부터 전개되지 않는다, 그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기 때문에 결사로부터 쾌락의 근원을 도출한다 (Strauss, 1953: 159).

여기서 그는 홉스와 같이 근대의 계약주의적 전통에서 추구하는 각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연 정복을 통한 쾌락의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생산력을 유용하게 발전시키는 관점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러한 쾌락의 추구는 그에게 있어서 자연적 질서에 부합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야만적 측면을 숭상하여 결국 문명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주범이다. 반면에 그는 바람직한 삶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연에 부합되는 삶은 인간적 우월성이나 미덕을 실현시키는 삶이며, '높은 수준의 인격(high-class person)' 을 실현시키는 삶이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Strauss, 1953: 127).

여기서 자연에 부합한다는 의미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인용한 인간의 사회성은 스트라우스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관습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예를 들어 사회적 특권은 자연적인 것

이 아니라 관습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사회의 관습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라우스가 보기에 덕성과 같은 고귀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가장 자연에 부합하는 삶이다. 이러한 스트라우스의 덕성에 대한 관심은 신보수주의자들에게도 이어진다. 어빙 크리스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민적 덕성의) 침식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어 단순한 '보수주의적' 접근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행동이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서의 노력의 부활이다(Dionne, 1996: 183).

이러한 크리스톨의 관심은 신보수주의에 매우 귀중한 이론적 자양분을 제공해 준 저명한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Peter Berger) 및 리처드 존 뉴하우스(Richard John Neuhaus)와도 수렴된다. 그들은 거대한 뉴딜적 국가, 비즈니스, 노동조합, 직업관료같은 기구들이 근대성의 산물로서 개인을 소외시키는 기제로 비판하며 가족, 교회, 결사체같은 매개구조(mediating structure)의 재건으로 시민적 덕성을 회복해야함을 주장하였다(안병진, 2003b: 33). 또한 이러한 시민적 덕성의 회복에 대한 관심은 그 자신이 신보수주의자는 아니지만 리버럴한 스트라우스주의자로 분류되는 갤스턴(William Galston)이나 네오 토크빌주의자인 푸트남(Robert Putnam) 등이 추진하는 전국적 자원봉사 조직(National Service) 건설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 한다. 클린턴 행정부 기간 동안 꽃을 피운 전국적 자원봉사 조직의 아이디어는 과거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 같이 단순히 도덕적 설교에 그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뉴딜적 방식으로 거대 정부의 단순한 개입도 부정한다. 비록 이 아이디어를 둘러싸고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와 같은 진보적 토크빌주의자와 위의 스트라우스주의자들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새로이 시민적 덕성의 관심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는 일치된다.¹⁷⁾

스트라우스가 시민적 덕성을 통해 현대 리버럴리즘의 폐해를 극복하려고 한 것처럼 종교 또한 매우 중요한 치유책으로 다루어진다. 칼 맑스는 한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지적하여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칼 맑스와 이

17) 전국적 자원봉사 조직 건설의 역사에 대해서는 안병진(2003a)을 참조할 것.

넘적 스펙트럼에서 반대편 끝에 서있는 스트라우스도 이에 인식을 같이 한다. 단, 차이라면 드리리가 지적하고 있듯이 맑스가 비판적인 측면에서 언급했다면 스트라우스는 긍정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아편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1997: 12). 스트라우스가 종교의 순기능에 주목한 것은 위에서 지적한 절대적 도덕관 및 시민적 덕성론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스트라우스가 보기에 모든 사회는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를 요구한다. 이 때 종교야말로 이러한 가치를 교육할 수 있는 전통적이고 가장 강력한 도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종교는 그 사회의 접착제 구실을 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열렬하게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모티브를 제공한다. 반면에 그가 보기에 진리들 간의 상대적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무제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근대적 사회에서는 종교의 가치가 폄하된다. 그런 점에서 그는 “무신론은 근대의 특징적인 현상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Strauss, 1953: 169). 그가 보기에 리버럴한 민주주의의 세속적 정치는 종교적 도덕성을 파괴하고 인생의 진중함 의미나 낙관성을 심어주지 못하고 타락과 사회적 해체로 이끈다. 독일에서 나찌의 부흥은 이러한 정신적 공백 속에서 발흥되었다고 그는 보고 있다. 사실 많은 리버럴들은 종교와 정치의 융합에 강한 거부감을 표명해왔다. 『티쿰』(Tikkun)지에서 유대인 랍비인 마이클 레너와의 영성에 대한 논쟁을 벌이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한 토드 기틀린(Todd Gitlin)같은 저명한 리버럴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반면에 신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이 어떤 종교가 됐든 정치활동에 종교성을 회복함을 통해 미국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고자 한다. 비록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과거 트로츠키파 출신인 이들의 종교에 대한 강조를 “동네의 매춘부가 종교에 귀의했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이들은 학교에서 기도를 의무화하려한 제리 폴웰(Jerry Falwell)같은 기독교 신우익의 지나치게 급진적 아이디어보다 더 설득력 있고 유연하게 종교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전파했다(Dorrien, 1993: 12). 예를 들어 이들 기독교 신우익의 기도의무화에 대한 노력이 국가를 직접적으로 이용한 종교의 강요라면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은 사회복지 사업에서 종교적 자선단체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종교적 가치를 전파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었다.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시민적 덕성과 종교의 중요성에 대한 스트라우스적 관점은 그대로 이어진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전 클린턴 정권은 스트라우스주의

자인 갤스틴의 주도하에 AmeriCorps라는 전국적 자원봉사 조직 건설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¹⁸⁾ 그의 뒤를 이어 집권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캠페인 기간 AmeriCorps 프로그램의 확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는 달리 많은 이의 예상을 뛰어넘어 2002년 연두교서에서 'USA Freedom Corps'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AmeriCorps 등 전국적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테러와의 전쟁에 이러한 자원봉사 조직들을 동원하는 대규모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 밖의 전환의 요인 중 한 가지는 AmeriCorps 프로그램이 부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종교적 자선 단체 지원 프로그램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 2001년 기준으로 5만명의 AmeriCorps 회원중 6천여 명이 종교적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견지에서 AmeriCorps는 비록 클린튼같은 리버럴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부시의 종교적 자선 단체에 대한 선거 기간의 공약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추진되었다. 또 다른 이유는 9·11 테러 이후 변화된 미국의 지형을 들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애국주의적 분위기가 일어나며 초당적으로 시민적 덕성 구현을 위한 캠페인들이 실행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자원봉사의 기능보다 테러와의 전쟁에 동원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이 제안된 USA Freedom Corps 프로그램은 기존 AmeriCorps 프로그램같은 자원봉사조직의 강화보다는 긴급 재난 구조 조직의 주도하에 이웃 감시(Neighborhood Watch), 테러리즘 정보와 예방 시스템(Terrorism Information & Prevention System) 프로그램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적 덕성을 향한 부시 행정부의 노력이 그 수사만큼 실천적 정책으로 뒷받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과거 클린튼 행정부와 달리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연두교서에서의 야심에 찬 수사와 달리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회는 2003년 6월 AmeriCorps 기금을 28퍼센트나 삭감하였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과 그로 인한 천문학적 예산이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한 참여 등의 시민적 덕성 함양이라는 과제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18) 이하의 내용은 안병진(2003a) 참조.

AmeriCorps 등의 프로그램은 시민적 덕성의 여러 측면 중 스트라우스주의자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애국주의적이고 전시 분위기를 강화하는 정치 캠페인 성격이 더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군사주의적인 덕성은 위에서 언급한 국내 리버럴리즘과의 전투적이고 당파적 투쟁과 함께 민주 사회의 자유로운 활력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로드(Carnes Lord)라고 하는 저명한 스트라우스주의자는 '현대군주론(Modern Prince: What Leaders Need To Know Now)' 이라고 하는 한 리더십 서적에서 시민적 덕성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치 리더들은 미국 역사의 가르침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분야에서 공립학교 커리큘럼을 형성하기 위한 행동을 수행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Norton, 2004: 130).

위 서적은 윌리엄 크리스톨 등 신보수주의자 및 맨스필드 같은 스트라우스주의자들 모두에게서 격찬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시민적 덕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AmeriCorps처럼 애국주의적 동원의 기제로 작용되며 로드의 주장처럼 당파적인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시민적 덕성 논의는 과거 덕성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기도한 토크빌이 찬양한 바 있는, 상대적으로 '국가없는 국가(stateless state)'로서의 미국을 조지 오웰적 국가(Orwellian state)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한 논의로 평가할 수 있다.

4. 결 론

위에서 필자는 스트라우스주의자들과 신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시민적 덕성이 참여 같은 가치라기보다는 애국주의, 군사주의적 심성들일지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사실 스트라우스주의자인 레온 카스는 "9·11 테러 이후 미묘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국인들의 도덕적 심각성에 대한 의식이 피부에 닿게 증가함을 느낀다"고 기뻐하고 있다(Norton, 2004: 153). 사실 전쟁은 과거 칼 슈미트는 물

론이고 스트라우스주의자들에게 있어 삶의 심각성을 회복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된다. 노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전쟁은 이들에게 상대주의 대신 선과 악의 선택을 결단력 있게 강요하고 용기와 대담함, 희생, 애국심같은 남성적이고 군사주의적 미덕을 고양시킨다(Norton, 2004: 153). 바로 이러한 가치가 스트라우스가 그토록 회복하기를 갈망했던 고대적 인간형의 구현이다. 그런 점에서 그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냉전 시절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21세기 부시 행정부에 와서 스트라우스주의는 이를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한 셈이다. 한 진보주의 논객의 다음과 같은 절망스런 언급은 역으로 고대성의 복원을 염원한 스트라우스주의의 성공을 시사한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명백하게도 반근대주의의 편에 섰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행정부의 수반이 궁극적으로 종족적이고 신정적이며 반과학적이고 다원주의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근본주의적 절대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 그토록 열정적으로 노력한 경우는 없었다(Kutter, 2004).

하지만 과거 마키아벨리나 아렌트가 경고하였듯이 전쟁과 제국주의를 위한 국가기구는 결국 본토의 공화정 내부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른다(Cohen, 2004). 지금 미국은 과거의 스트라우스가 스스로 놀랄 만큼 스트라우스주의자들에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스트라우스가 그토록 밀교적 진리를 강조한 것은 그의 보수주의적 정치 사상의 함의가 결코 리버럴 민주주의가 용납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비록 그는 그의 사상의 대부격인 슈미트와 달리 히틀러를 강하게 비판하고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위에서 지적한 그의 사상의 정치적 함의는 전체주의적이다. 단지 그는 비종교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이며 과학주의적인 나찌즘에 반대할 뿐이다. 그러하기에 그는 1933년 반유대법안이 제정된 이후 칼 로위쓰(Karl Lowith)라는 한 독일 학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히틀러 방식과 다른 “파시스트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제국적(imperial)인” 우익의 원칙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Xenos, 2004: 3). 이러한 그의 사상의 정치적 함의는 애초부터 독립선언서가 함의하는 민주주의적 원칙 하에 성립된 미국으로

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미국은 과거 히틀러를 피해 스트라우스처럼 망명한 아렌트가 새로운 문명으로 격찬한 민주주의적 잠재력들이 서서히 훼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정보 왜곡이 책임을 물음 없이 넘어가고, 신보수주의자들 스스로가 노골적으로 미국이 제국이라고 선언하고, 더 나아가 고문의 필요성과 행사할 수 있는 수위가 공개적으로 언론 지상에서 논의되고 있기까지 하다. 또한 시민적 덕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스트라우스주의적 덕성 논의는 리버럴들의 덕성 논의와 혼재된 채 자연스럽게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

스트라우스주의의 고대적 인간형 회복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이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야심차게 주도했지만 현재 수렁에 빠진 이라크 국가건설 문제와 미국의 시민사회의 성찰 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사회의 비즈니스 진영과 시민들의 과반수는 동성애, 가족 등의 가치에서 스트라우스적인 가치 이념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동성애 금지 헌법 수정안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의 3분의 일만이 현재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들에게는 난관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스트라우스주의 신보수주의자와 다른 경향의 분파들 간에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스트라우스 진영은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그 어떤 정권도 따를 수 없을 만큼 고대적 부활 프로젝트에 성공했으며 바로 그 이유로 인해 헤겔이 그토록 찬양한 '미래의 국가'로서의 미국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동규(1999), "Leo Strauss의 Carl Schmitt 비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환(1995), "미 복지 및 이민정책 변화를 통해본 신보수주의의 지속성 평가", 《국제정치논총》 35(2).
- 김영국(1995),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레오 스트라우스(2001), 《자연권과 역사》, 홍원표 옮김, 인간사랑.
- 마이클 린드(2003), 《부시 메이드인 텍사스》, 동아일보사.
- 백창재(2003),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국가전략》 가을호(미간행).
- 안병진(2003a), "미국의 결사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Americorps를 중심으로", 경희대 시민사회학회 발표문.
- _____ (2003b), "신보수주의 집권의 아이러니", 《역사비평》 64(가을).
- _____ (2004),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뿌리와 정치적 함의: 레오 스트라우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 임용순(1990), "1980년대 미국 사회와 정치: 신보수주의의 석권", 한국아메리카학회, 《미국학논집》 22.
- 주용식(2003), "세계를 바꾼 부시의 이념, 신보수주의 연구", 《월간조선》 7월.
- 포도레츠(Podhoretz)(2002), 《네오콘: 팩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이장훈 역(2003), 서울: 미래 M&B.
- 홍원표(1992), "고전적 합리주의의 현대적 해석: 스트라우스, 보에글린, 아렌트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shford, Nigel (1986), "Neo-Conservatism and the New Class: A Critical Evaluation", *Sociological Notes* No.3, <http://www.libertarian.co.uk/laphbs/socin/socin003.pdf> (검색일: 2003. 03.10).
- Atlas, James (2003), "What It Takes to Be a Neo-Neoconservative", *New York Times*, October 19, <http://www.nytimes.com/2003/10/19/weekinreview/19ATLA.html?pagewanted=...> (검색일: 2003. 10.21).
- Berstein, Richard (1995), "A Very Unlikely Villain(or Hero)", *New York Times*, January 29.
- Bloom, Allan (1987),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Bloom, Alexander (1986), *Prodigal S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lumenthal, Sidney (2003), *The Clinton Wars*,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 Buckley, William F. Jr. (1951), *God and Man*, Yale: Regnery Gateway.
- Cohen, Jean (2004), "Constitutional Democracy Colloquium", *Dissent*, Fall,

- http://www.dissentmagazine.org/menutest/articles/fa04/jean_cohen.htm (검색일: 2004. 12. 16).
- Devigne, Robert (1994), *Recasting Conservatism: Oakeshott, Strauss, and the Response to Postmodern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ionne Jr., E.J. (1996), *They Only Look Dead: Why Progressives Will Dominate the Next Political Era*, New York: A Touchstone Book.
- D'Souza, Dinesh and Adam Meyerson (1987), "The Legacy of Leo Strauss: Is America the Ancient Society that the Ancient Philosophers Sought?", *Policy Review*, Spring.
- Dorrien, Gary (1993), *The Neoconservative Mind : Politics, Culture, and the War of Ideology*,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 Drury, Shadia B. (1988), *The Political Ideas of Leo Strauss*, New York: MacMillan Press.
- _____ (1997), *Leo Strauss and the American Right*, New York: St. Martin's Press.
- Ehrman, John (1995), *The Rise of Neoconservatism: Intellectuals and Foreign Affairs, 1945-1994*,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Friedman, Thomas (2004), "Two Nations Under God", *New York Times*, November 4.
- Gerson, Mark (1997), *The Neoconservative Vision: From the Cold War To the Culture Wars*, Lenham: Madison books.
- Gilson, Dave (2004), "Torture and Truth", *Motherjones.com*, http://motherjones.com/cgi-bin/print_article.pl?url=http://motherjones.com/news/... (검색일: 2004. 12. 16).
- Har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00), *Empi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eveler, Jr. David (1991), *Watch on the Right: Conservative Intellectuals in the Reagan Era*,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ass, Leon R (2004), "Why we should ban human cloning now", *The New Republic*, http://www.tnr.com/052101/kass052101_print.html (검색일: 2004. 12. 23).
- Kristol, Irving (1973), *On The Democratic Idea in America*, New York: Harper and Row.
- _____ (1983), *Reflections Of A Neoconservative: Looking Back, Looking Ahead*, New York: Basic Books, Inc.
- _____ (1999), *Neo-Conservatism : The Autobiography of an Idea*, Ivan R. Dee, New York: Free Press.
- Kutter, Robert (2004), "Attacking American Tolerance", *American Prospect Online*, <http://www.prospect.org/web/printfriendly-wiew.ww?id=88622> (검색일: 2004.11.23).
- Lenzner, Steven (2003), "Leo Strauss and the Conservatives", *Policy Review*, No. 118, http://www.policyreview.org/apr03/lenzner_print.html (검색일: 2003. 05. 22).

- Lobe, Jim (2004), "Leo Strauss' Philosophy of Deception", *AlterNet*, <http://www.alternet.org/module/printversion/15935> (검색일: 2004. 12. 16).
- Marshall, Joshua (2003), "Remaking the World: Bush and the Neoconservatives", *Foreign Affairs*, November, <http://www.foreignaffairs.org/20031101fareviewessay82624/joshua-micah-mar...> (검색일: 2003. 10. 29).
- Mason, John (2004), "Leo Strauss and the Noble Lie: The Neo-Cons at War", *Logosjournal*, Spring, <http://www.logosjournal.com/mason.htm> (검색일: 2004. 12. 16).
- Meier, Heinrich (1995), *Carl Schmitt and Leo Strauss: the hidden dialogu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Niebuhr, Reinhold (1945),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_____ (1960),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Norton, Anne (2004), *Leo Strauss and the Politics of American Empi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Ognibene, Peter J. (1977), *Scoop: The Life and Politics of Henry M. Jackson*, NY: Stein & Day/Publisher.
- Sherwell, Phillip (2004), "The CIA 'old guard' goes to war with Bush", <http://www.telegraph.co.uk/core/content/displayPrintable.jhtml;sessi...> (검색일: 2004. 12. 23).
- Strauss, Leo (1936), *The Political Philosophy of Hobbes: Its Basis and Its Genesis*,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1948), *On Tyrann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52), *Perception and the Art of Writing*, Westport: Greenwood Press.
- _____ (1953), *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58), *Thoughts on Machiavell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59),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Westport: Greenwood Press.
- _____ (1962), "An Epilogue", Herbert J. Storing(ed.), *Essays On The Scientific Study Of Politics*.
- _____ (1964), *The City And Man*,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 _____ (1965), *Spinoza's Critique of Religion*, New York: Schocken Books.
- Traub, James (2003), "Temperament Wars", *The New York Times*, July 6.
- _____ (1968), *Liberalism Ancient & Moder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hitehouse (2003),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Young-Bruel, Elisabeth (1984), *Hanna Arendt: For Love of th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Xenos, Nicholas (2004), "Leo Strauss and the Rhetoric of the War on Terror", *Logosjournal*,
<http://www.logosjournal.com/xenos.htm> (검색일: 2004. 12. 16).

Ideological Roots of Neo-conservatism

Ahn, Byong-Jin*

Neo-conservatism has its roots in various ideological trends. Among these ideological roots, this article specifically focuses on Leo Strauss, who has been playing a major role in shaping Neo-conservative minds. In this article, I will seek to extract following four characteristics of Neo-conservative ideology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1) Elitism; (2) Absolute moralism; (3) Fear and power; (4) Civic virtue and Religion. This article is less concerned in summarizing its main themes than demonstrating its political implication to current Bush administration.

*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nsfsr@hotmail.com

